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록 콘텐츠 개발 연구*

A Study on Developing Archival Contents for Urban Sustainability*

이경남(Kyungnam Lee)

E-mail: coarchivist@gmail.com

한신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강사



논문접수 2024.07.16
최초심사 2024.07.19
게재확정 2024.08.19

ORCID

Kyungnam Lee
https://orcid.org/0000-0001-6357-4632

초 록

이 연구는 거대도시화가 심화되며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멸 위기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록 콘텐츠 개발 방법론을 탐구한다. 장소성 이론 검토를 통해 기록 콘텐츠가 재현하는 장소성이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 방법론을 분석하여 기록 콘텐츠를 구성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록 콘텐츠와 이용자의 상호작용을 증진하는 서비스 방안을 모색한다. 이 연구에서 기록 콘텐츠가 장소성을 재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지원하는 아카이브 전략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7057301)

ABSTRACT

The research explores methodologies for the development of archival contents to support urban sustainability in the context of intensifying urbanization leading to local extinction. Through an analysis of placemaking theories, the study demonstrates that the sense of place reproduced in archival content can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a unique local identity. The research proposes a comprehensive approach to constructing and organizing archival content by examining narrative and storytelling methodologies. In addition, it conceptualizes a service model that enhances the interaction between archival content and users by leveraging digital technologies. This study theoretically confirms that archival content can play a role in reconstructing and supporting placeness. It is hoped that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rchival strategies that support urban sustainability.

Keywords: 지속가능성, 장소성, 기록 콘텐츠, 스토리텔링, 내러티브
Sustainability, Placeness, Archival contents, Storytelling, Narrative

<https://jksarm.koar.kr>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인류의 절반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하루에 20만 명씩 도시로 이주가 진행되고 있다(Wilson, 2020/2021).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토지 면적의 2%에 불과한 도시에는 전 세계 인구의 55%가 살고 있으며, 2050년에는 68%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된다(UN Habitat, 2020). 마찬가지로 서울의 면적은 전국 대비 0.6%인데 반해, 인구 집중도는 전국 대비 20.2%를 기록하고 있다(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발행년불명). 이처럼 인구 이동은 메트로폴리스로의 집결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도시 양극화 현상을 보인다. 새로운 기술 환경이 도래할 때마다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생활양식이 바뀌며 도시의 모습도 변화되어 왔다. 이동성을 의미하는 모빌리티(Mobility) 개념은 이동이라는 요인이 만들어내는 공간의 변화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에 주목한다. 오늘날 모빌리티 기술의 발달은 도시 내 자산과 정보의 활용 형태를 변화시키며 새로운 유형의 도시 집중을 초래하고 있다. 교통과 통신망의 발달은 주요 도시로의 인구 이동을 촉진하며 네트워크는 역시 도시의 중심부를 향해 연결된다.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산업과 자본, 문화와 예술 등의 모든 자원과 인프라도 도시로 집결되며 거대 도시, 메트로폴리스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같은 거대 도시의 탄생은 지방 중소도시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이와 비례하여 주변 도시의 인구는 감소하거나 도시 기능을 상실한 기형적인 베드타운 형태의 도시로 남게 된다. 게다가 대도시로 자원이 집중되며 지역 기반의 산업구조는 붕괴하고 자본과 문화 예술 자원 역시 빠져나가 지방의 도시들은 쇠락하고 빈 도시가 되어간다. 메트로폴리스는 비대해진 몸집만큼 수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인구 밀집과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기후 재앙'으로 표현되는 환경 문제도 야기하며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쇠락하며 사라져간 도시는 그 도시의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도시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대도시 집중화로 불거진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완화하고, 지구 생태환경과 인류의 공생을 위해 필요한 도시 성장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도시 변화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으로 귀결된다고 본다. 중소도시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2023.1.1.) 하고 인구감소 지수 지표를 근거로 인구감소 지역 89개 시군구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이 직접 구술 채록이나 기록 수집에 참여하는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시민기록단', '마을기록단'으로 불리는 지역 내 아카이빙 활동은 사라져가는 지역 장소에 대한 기억을 기록하고 고유의 이야기를 복원하는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 회복을 도모한다. '증평기록단', '미추홀기록단', '수원도시기록단'의 활동과 같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카이빙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실제 구술 채록과 기록 수집 활동을 진행하여 아카이빙 결과물을 책자로 발간하거나 전시, 지역문화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다. 시민기록단 활동들은 지역 내 아카이브나 도서관, 문화원과 같은 문화기관이 주도하고 있으며, 도시 기억의 기록 활동을 통한 지역 정체성 강화를 표방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지방 중소도시의 소멸 위기 상황에서 기억기관으로서 아카이브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고유의 장소정체성을 강화하는 기록 콘텐츠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도시의 지속가능성 관점을 견지하며 아카이브가 장소정체성 강화에 기여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런 점에서 기록을 통한 장소성의 재현이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장소성을 강화

하는 기록 콘텐츠 제작 방법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첫째, 지역의 정체성을 장소성의 개념을 통해 이해해보고 장소성을 드러내는 기록을 발굴하여 콘텐츠로 기획하는 작업이 갖는 의의를 도시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검토한다. 둘째, 장소정체성을 재현하는 기록 콘텐츠를 구성하는 방법론으로써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의 기능과 효과를 살펴본다. 셋째, 기록 콘텐츠의 제공에 있어 이용자의 체험과 참여를 증대하는 방안을 모색해본다. 이를 통해 장소정체성을 갖는 기록을 발굴하고 기록 콘텐츠로 활용하여 아카이브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아카이브의 지평을 확장하고, 도시가 직면한 성장의 한계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2 선행연구

기록 콘텐츠는 공공 문화 서비스의 수요 증가로 인해 주목받고 있으나 기록 매체의 콘텐츠 기획 및 제작, 활용 사례에 관한 연구 성과는 많지 않다. 그러나 국내의 기록학 연구 분야에서 기록관리기관의 관리 체계나 방법론에 집중되었던 연구 주제가 점차 정보서비스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록 콘텐츠와 관련한 주요 선행연구로는 학습을 위한 교육용 콘텐츠의 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도윤지, 2013; 백진이, 이해영, 2018; 신예진, 최재황, 2015; 심성보, 2007; 이은영, 2011a; 2011b), 전시 및 특정 주제의 홍보 콘텐츠 활용에 관한 연구(서은경, 박희진, 2019; 심갑용 외, 2015; 오경한, 김건, 2023), 기록관리기관에서의 콘텐츠 서비스 및 이용에 관한 연구(고은지, 이해영, 2023; 박옥남, 2019; 유은영, 강순애, 2019; 정희명, 김순희, 2023), 새로운 기술로서의 메타버스를 활용한 기록정보서비스 연구(김현진, 임진희, 2022)와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연구(박옥남, 2022) 등이 이루어졌다. 이상의 연구는 주로 기록관리기관에서 이용자 서비스의 확대 측면에서의 콘텐츠 개발 및 활용 방안, 개선 방향을 제시한 특징을 보이고 있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 및 활용에 관한 본 연구와는 범위를 달리한다.

한편 지역의 기록활동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시민들의 참여 확대 및 지속적 기록활동 지원 방안을 논의하거나(손동유, 이경준, 2013; 이영남, 2008),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는(윤규빈, 2024; 이도순, 2021) 것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연구는 아카이브에서 운영했던 활동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지역의 로컬리티를 기반으로 역사 인물 콘텐츠를 개발하는 과정을 모색한 연구(현문수, 김동철, 2013)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 콘텐츠를 개발하는 과정을 고찰하여 지역성을 드러내는 데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료 및 맥락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화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 콘텐츠 기획에 관한 방법론적 접근을 다루지는 않는다. 이 외에 (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2019)의 연구를 주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의 발굴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구술자료를 활용하여 스토리를 개발하고 투어 코스를 기획하는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기록을 지역 관광 콘텐츠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역의 조사자료와 지역 주민 인터뷰 내용의 활용 방안에 관한 프로젝트 수행 사례를 공유한 연구로서, 기록 콘텐츠의 개발 방법론으로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이와 더불어 기록의 수집 과정에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수집 객체들을 조직화한 연구(이경남, 이현정, 2020)도 콘텐츠 개발의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록 객체를 조직화하는 방법으로 내러티브 중심의 기록 맥락화를 통해 아카이브에서의 새로운 콘텐츠 개발 방법을 시도하였다.

이 외에 최인호(2008), 최혜실(2008)과 같이 지역 활성화의 방안으로 관광 콘텐츠의 개발을 논의한 문화콘텐츠 분야의 연구들은 있었지만, 장소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록 콘텐츠를 개발하는 과정을 기록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본 연구와는 근본적으로 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기록 콘텐츠의 기획 및 제작 과정 방법론에

관한 기록학의 선행연구가 미진한 상황에서 문화콘텐츠 분야의 스토리텔링 방법론은 주목할 만하다. 스토리텔링은 미디어 및 디지털 기술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콘텐츠 유형이 다양해지는 환경에서 급속하게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박기수 외, 2012).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업무 환경의 변화로 디지털 기록 유형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스토리텔링 방법론을 기록 콘텐츠에 적용하려는 본 연구는 기록 콘텐츠의 활발한 제작과 활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3 연구 범위 및 방법

아카이브에서 기존의 기록 콘텐츠 서비스는 소장 자료의 정리 체계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기록의 생산 시점의 출처 정보나 기록이 갖고 있는 정보를 기술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최근 특정 주제에 관한 기록들을 모아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록 콘텐츠, 혹은 기록 컬렉션 등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콘텐츠 역시 기록 간의 맥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기보다는 조직별, 출처별, 시기별로 유사한 속성 정보들의 묶음으로 나열되고 있거나 단방향성 정보 제공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개별 기록이 갖는 상징과 의미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해석하거나, 콘텐츠 이용자의 기억과 경험을 소환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개발되었다고 보기에는 미진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기록 콘텐츠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특히 기록을 통해 장소에 대한 기억을 재현할 수 있는 기록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 이를 위해 기존에 아카이브에서 제공했던 맥락 정보가 결여된 파편적이고 단면적인 기록 콘텐츠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록과 기록간의 맥락 정보를 연결하여 의미를 갖는 콘텐츠로 조직화하는 방법론을 탐색하였다. ‘남아 있는’ 기록 중심의 파편화된 아카이브 조각들이 갖는 의미와 상징은 거시적 맥락에서 조직될 때 비로소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다. 개별 기록이 드러내는 ‘미시사적인’ 현상은 그 기록과 관련된 다른 기록과의 총체적 연관성 속에서 ‘거시적’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관련 기록을 조직화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 방법론을 적용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활용할 수 있는 기록 콘텐츠를 개발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렇게 개발된 기록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의 활용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두 개의 세부 연구로 구성하였다.

첫째, 기록 콘텐츠 개발을 위해 인접 학문 분야(문화콘텐츠, 지역학, 도시학 등)의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에 관한 문헌 연구 분석을 통해 이론적 배경과 콘텐츠 이용자의 수용 과정, 이용자의 상호작용 과정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의 방법론은 기록 콘텐츠의 기획 의도와 콘텐츠 수용자의 해석에 따른 의미, 그리고 기록 콘텐츠를 둘러싼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함으로써 장소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적합한 기제임을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사회적 공간에 대한 이론 분석과 콘텐츠 개발 방법론을 접목하여 기록 콘텐츠 개발 모형을 제안하였다. 특히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 이 두 방법론을 적용하여 기록 콘텐츠를 개발하는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아카이브 현장에서의 실무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둘째, 장소정체성 관련 기록 콘텐츠의 효과적인 서비스 활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과 같은 문화기관에서 콘텐츠 서비스 제공에 활용하는 최신의 기술 적용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검토하였다. 더욱이 장소정체성을 담은 기록 콘텐츠는 해당 지역 주민 집단기억의 소환과 연결되어야 하므로 기존의 아카이브에서의 이용자 서비스를 넘어서는 콘텐츠 체험형 서비스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기술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메타버스를 비롯한 실감미디어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서비스에 관한 사례조사를 통해 활용 가능성을

탐색해보았다. 디지털 기술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아카이브의 콘텐츠 제공에 관한 특성을 분석하고 새로운 기술의 활용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다양한 아카이브 서비스 연구의 시론적 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기록으로 재현되는 장소성과 도시의 지속가능성

2.1 지역의 소멸과 도시의 지속가능성 논의

도시지역의 인구 증가는 한국전쟁 이후 산업구조의 재편과 급속한 공업화 과정에서 도시팽창으로 촉발되었다. 경제적 고도성장 이면에는 이촌향도로 인한 극단적인 인구 이동과 산업 인프라의 집중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지역 발전의 불균형이 심화하였고, 이는 오늘날의 지방 소멸로 이어지고 있다.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은 <표 1>과 같이 지속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 국토의 16.7%인 도시면적에 국내 총 인구의 91.9%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도시지역 인구 중에서도 52.5%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국토교통부, 한국국토정보공사, 2023, 4).

<표 1> 도시지역 인구비율 추이 현황

(단위:천인)

	1997	2002	2007	2012	2017	2022
도시지역인구	40,839	43,256	44,610	46,381	47,542	47,294
비도시지역인구	5,974	5,439	4,658	4,566	4,235	4,145
도시지역인구비율(%)	87.2	88.7	90.5	91.0	91.8	91.9

출처: e-나라지표 도시일반현황 재구성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00]

여기에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 위기가 겹치며 지방 소멸을 넘어 ‘인구 소멸 국가 1호’로 지목되기도 하였다.¹⁾ 이러한 위기 속에서 지방 소멸은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2022년 기준 소멸 위험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절반에 달하는 113개로 전망되었다(한국고용정보원 보도자료, 2022). 실제 읍·면·동에서 신생아 수가 0명인 지역은 123곳을 기록했으며, 이들 지역 가운데 인구수가 1000명이 안되는 곳은 1/3인 41곳에 달하고, 심지어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은 신생아 수가 100명, 경기도 연천군 중면 162명,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시산리는 191명에 불과하다(시사저널, 2024.2.23.). 지역 소멸 위험은 디스토피아적 미래 경고가 아니라 눈앞에 닥친 현실이 되었다.

이에 정부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인구감소 지역 89개와 관심 지역 18개 시군구를 지정하여 지방 소멸 대응기금 등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연 1조 원을 10년간 지방 소멸 지자체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시적 재정 지원은 단기 성과에 치중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재원과 시설 등의 연계, 협력을 통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 대안이 필요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류영아, 2022).

지역 소멸의 위기는 기존의 도시 정책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 위주의 도시 정책은 도시 간의 양극화를 심화하였고, 지역의 쇠퇴와 소멸, 그리고 도시 내의 공동화 현상을 가져왔다. 한계에 부딪힌 도시 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 건설과 성장 위주의 도시 개발 정책은 오늘날 ‘도시재생’으로 변화되었

1)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2006년 유엔 인구 포럼에서 ‘1호 인구 소멸 국가’로 한국을 지목했다. 이때 당시의 합계출산율은 1.13명이었으나 2022년 0.78명으로 더욱 떨어졌다.

다. 여기에서 도시재생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 개선에서 더 나아가 도시 기능의 재활성화, 경제 기반, 사회 구조, 환경 상태의 개선을 포함하며,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관리의 개념을 포함한다(김창휘, 2022, 53-54). 즉 기존의 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도시 기능을 구조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개념으로 전환된 것이다. 지속가능성에 대해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발전할 수 있는 기틀로 정의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의 논의와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지속가능성의 관점으로 도시의 질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담론이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은 인간, 환경, 경제, 사회가 연속적 체계를 이루며, 현재의 가용량을 유지하면서 미래 세대와의 필요성을 절충하는 지속가능한 계획과 활동을 중점에 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정은주 외, 2016).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환경오염과 기후 위기가 심해지며 등장하여 도시 개발의 패러다임 전환에 활용되었다. 도시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추진된 도시 공간적 접근으로는 생태도시, 생태문화도시, 창조도시, 에코시티, 그린시티,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살기좋은마을만들기 사업 등의 사례가 있다(정은주 외, 2016). 해당 사업들은 도시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데 있어 상생협력을 기치로 내건 상업구조를 조성하고 주민참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창구를 제도화하며,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복지, 문화 정책들을 추진한다. 환경과 정치, 경제,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에 대한 애착과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높임으로써 시민의 역량이 강화되고 시민이 발전의 주체가 된다(송주연, 임석희, 2015).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정체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도시정체성은 도시를 대표하는 특징으로 지역 문화와 지역적 개성, 내재된 에너지를 상징하며(손지수, 2007, 22), 이는 다른 도시와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으로서 도시의 차별화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도시정체성은 시간과 공간의 역사 토대 위에 구축되어 온 문화로 만들어지는 특색이며, 다른 도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유한 정체성이다. 생존을 위한 도시 간의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본질적이고 고유한 정체성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졌다. 다른 도시와 구별되는 고유한 자원으로 도시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전략은 도시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1990년대 들어서며 도시정체성을 근간으로 한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장소마케팅이 활성화되었다. 장소마케팅의 성공 사례들을 보면 쇠락한 공업도시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도시문화 부흥 전략으로 추진된 경우가 많다. 장소마케팅의 일환으로 도시브랜드를 추진한 암스테르담의 'I amsterdam'이나 뉴욕의 'I♥NY' 등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소마케팅은 장소의 정체성을 찾고 이것을 토대로 상품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브랜드화하는 마케팅 전략이 핵심이다(이무용, 2006, 43).

본 연구는 이러한 도시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장소를 기반으로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아카이브의 역할을 논의해본다. 장소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기억과 기록을 모으고 재구성하는 행위를 장소성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이러한 아카이브의 활동이 갖는 의의에 대해 검토해본다.

2.2 기록으로 재현되는 장소성

도시의 쇠퇴와 소멸은 그 지역을 터전으로 삼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기억,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단절과 소거를 의미한다. 사람들의 이야기와 기억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게 되면 공동체의 정체성은 희미해지고 사라질 수 있다. 기억은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며, 공동체의 기억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이다(설문원, 김영, 2016). 집단기억이 사회의 총체적 권력관계가 반영된, 구조화된 사회적 기억으로 정의되는(이경래, 2015, 7)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집단기억은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된다. 동시에 집단기억과 아카이브의 관계 측면을 살펴보면, 공동체는 공동의 기억이 담긴 아카이브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사회에 인식시키고 아카이브를 통해 ‘기억의 공동체’를 형성해간다(설문원, 김영, 2016). 그런 점에서 아카이브는 공동체가 부여한 가치와 의미로 재구성되며 집단기억을 형성하고, 집단기억과 역사적 경험이 축적되며 공동체의 정체성은 공고해진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록은 집단기억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매체가 된다. 따라서 집단기억에서 비롯되는 공동체의 정체성 측면에서, 도시라는 장소를 기반으로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는 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도시를 중심으로 공동체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소에 대한 담론 분석을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인문지리학자 이-푸 투안(Yi-Fu Tuan)은 <공간과 장소>에서 동질적 공간(Space)에서 그 공간을 더 이해하고 가치를 부여하면 그 공간이 장소(Place)가 된다고 해석하였다(Tuan, 1977/2020). 기존의 공간의 개념이 사물의 존재 공간이나 물리적 위치 및 지각 가능한 관계로 설명되며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에 한계를 드러내자, 시간의 개념을 더해 인간의 경험과 기억, 사회적 맥락을 중시하는 장소의 개념으로 확장되었고, 공간에서 장소로 변화하는 장소화를 겪으며 장소의 특성을 나타내는 장소성(Placeness)과 장소감(Sense Place)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다(서동진, 김주연, 2022). 다시 말해 공간에 개인의 경험과 기억이 더해져 장소가 되며, 그 장소에 대해 느끼는 감정인 장소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장소감이 개인의 주관적 인식의 측면이 강조된 것에 비해, 장소 자체의 정체성에 대해 집단적이고 사회적 인식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을 장소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서동진, 김주연, 2022, 368).

장소는 개인의 경험과 기억이 축적된 결과로써 다른 장소들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갖는다.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는 <장소와 장소상실(Place and Placelessness)>에서 장소정체성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장소정체성은 물리적인 환경과 활동, 그리고 사람들의 의도와 경험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의미, 이 세 가지 구성 요소의 조합으로 형성되며,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변화한다(Relph, 1976/2005). 이 장소정체성은 다른 장소와의 차이에서 구별되는 동일성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이 갖는 장소에 대한 정체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Relph, 1976/2005). 즉 장소에 대한 개인의 경험이나 기억, 그리고 관계성에 의해 장소정체성은 강화되거나 변화하는 것이다.

현시대를 ‘공간의 시대’로 정의한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사회적 현상이 되는 공간과 그 공간이 갖는 관계에 주목하였다. 여기에서 공간은 객관적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지향성에 의해 드러나는 현상이며, 장소는 의도된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강학순, 2011). 푸코의 장소는 사회적 활동을 통해 의미를 갖는 공간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장소에 대한 담론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장소는 단순한 공간을 넘어서 인간의 경험 혹은 생활 세계와의 연관선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정현목, 2013, 113) 확인하였다. 공간이 다른 공간과 구별되는 의미를 갖는 장소가 되는 것은 개인 또는 집단의 경험에 기반하여 장소로 전환되는 것을 뜻한다. 개인 또는 집단의 경험에는 그 장소에서의 기억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장소성의 개념의 토대 위에서 장소와 집단의 기억이 상호작용을 함을 이해해야 한다. 집단의 기억은 공동체의 역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집단의 기억에 의해 형성되는 장소성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기억은 개인적인 동시에 사회적이다. 어떠한 기억들은 망각되지만 어떠한 기억은 지속적으로 재생되고 유지되며 역사가 된다. 정체성을 상징하는 장소를 통해 집단의 기억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다음 세대로 전승된다. 프랑스의 철학자 피에르 노라(Pierre Nora)는 대표작인 <기억의 장소 (Les Lieux de Memoire)>에서 집단기억

이 응축되는 장소들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장소는 도서관, 박물관, 묘지, 아카이브 등 구체적인 지형이나 전사자 기념비, 베르사유 궁전과 같은 기념물일 수 있으며, 세대, 문양, 정치 성향 등과 같은 상징기제, 또는 교과서, 협회, 이론 등과 같은 기능적 도구들일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장소는 가장 물질적이고 구체적인 것에서 가장 추상적이고 지적으로도 구성될 수 있다(이용재, 2010, 188). 국가적 차원에서 특정 장소를 정체성을 갖는 장소로 재생산하기 위해 기념물과 상징을 만들며 사람들로 하여금 동질적 감각을 소비하도록 하도록 하며 장소성을 강화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록은 집단기억을 재현하는 핵심적인 도구가 되며, 기록을 통해 집단의 기억은 재구성되고 집단의 정체성은 유지된다. 대표적으로 나치 정권의 체노사이드인 ‘홀로코스트’ 희생자에 대한 추모, 참상의 고발, 반성과 성찰, 용서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기억을 소환하는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살된 유럽 유대인 추모비(Denkmal für die ermordeten Juden Europas)와 테러의 토포그래피(Topographie de la terreur) 박물관에서는 희생자의 일기와 편지, 메모, 신문기사, 사진자료 등을 통해 참상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개인의 경험과 이야기로부터 공동의 기억이 만들어지고 선택된 기억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형성해간다. 이렇게 공동체는 기록을 통해 공동의 기억을 재현하고 기록의 의미와 가치를 재해석하는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기억을 형성해 나간다. 그러므로 지역사 연구나 지역의 공동체 정체성 연구에서 기록을 통한 접근은 의미있는 방법론이 된다.

렐프는 공동체가 장소의 정체성을, 장소가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한다고 보았다(Relph, 1976/2005, 86). 특히 사람들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은 경관에 표출되며, 경관이 갖는 메시지는 그 장소 출신 사람들에게 그 장소 자체가 지니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정체성을 부여한다고 설명한다(Relph, 1976/2005, 86). 이처럼 장소정체성은 지역 공동체의 상호작용 경험과 기억에 기반한다. 이때의 기억은 현재의 필요에 의해 선택되며 사회적으로 재구성되는 정치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송정숙, 2012, 347-348).

기록화한다는 것은 기록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과 그 맥락이 맺고 있는 의미를 표상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록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더욱 집중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 기록화 전략을 공간 자체의 물리적 변화 이력을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소가 갖는 사회적·자연적 현상, 그리고 장소에 대한 경험과 기억도 함께 기록화한다면(설문원, 2011, 210) 장소정체성을 강화하는 도구로서 기록을 활용할 수 있다.

도시 내의 혹은 도시 전체의 공간에 대한 장소성, 그리고 장소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의 축적으로 형성되는 장소정체성은 도시가 갖는 고유의 도시정체성으로 확장된다. 도시정체성을 갖는 기록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기록학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균등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 지역적 특성을 갖는 고유의 기록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일은 문화자원의 홍보 효과뿐만 아니라, 도시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성장가능성을 비추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도시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억을 모아야 하며, 이 기억을 증거하는 기록을 통해 도시의 정체성은 재현될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 도시의 정체성을 재현하는 기록들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은 도시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도시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다. 이와 더불어 기록을 매개로 집단의 기억이 소환되고 공동체의 정체성이 전승된다는 것은 아카이브가 기억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아카이브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장소정체성 관련 기록 콘텐츠 개발 방안

3.1 기록 콘텐츠 개발 방법론 설계

장소정체성은 랠프가 설명한 구성요소인 장소의 물리적 특징, 활동과 기능, 의미와 상징들이 상호작용하며 지속된다(Ralph, 1976/2005, 138). 이들 요소는 공간적·시간적 맥락에 따라 관계성을 가지며 정체성을 형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간적·시간적 맥락에 주목하여 장소정체성을 강화하는 경험과 기억의 재현물인 기록의 활용 방안을 고안한다. 장소성을 중심으로 하여 각각의 기록 매체 간의 유기적 연관성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론으로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 이론은 유의미하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으로 주목받게 된 내러티브는 하나의 현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내러티브를 통해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와 해석이 가능하며, 내러티브가 인간의 경험을 조직화하고 이해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박민정, 2006, 28). 한편 내러티브가 자기 완결적이고 자족적인 논리구조를 갖는 것과 달리, 수용자의 참여적 특징이 있는 스토리텔링으로의 전환은 대중소 비문화의 확산과 함께 대중의 능동적 향유를 확장하였다고 평가되기도 한다(류은영, 2009, 232).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의 개념은 콘텐츠 산업의 발달과 함께 모호하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디지털미디어의 등장으로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의 융합을 가져오며 각각의 경계는 더욱 모호해졌다. 스토리텔링을 통한 재현에는 서사적 플롯이 관여하며 내러티브적으로 구성되고, 내러티브 형식을 스토리텔링의 속성 일부로 내재화하는 경향이 있다(류은영, 2009, 248). 하지만 기록 콘텐츠의 개발을 위해서는 각각의 이론에 대한 개념과 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내러티브는 ‘알려준다’는 의미의 라틴어 ‘narre’에서 유래한 것으로, 선형적인 시퀀스로 사건들의 인과성을 강조하여 구조화한다(Lacey, 2000/2020, 32). 즉 사건을 인과 구조와 시간순으로 구성하는 특성을 갖는다. 내러티브는 명시적으로 텍스트에 제시된 모든 것을 의미하는 플롯과 표면적이고 명시적으로 제시된 것뿐만 아니라 추정되는 모든 사건을 시간순으로 배열한 스토리를 주요 요소로 갖는다(Lacey, 2000/2020, 36). 따라서 기록 콘텐츠가 하나의 내러티브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두 개 이상의 사건(기록)이 논리적 인과관계에 따라 시퀀스로 전개되는 것이 필요하다. 콘텐츠에 포함된 각각의 기록 객체들은 내러티브의 구조 안에서 시퀀스를 형성하게 된다. 내러티브는 이렇게 서로 다른 텍스트 간의 유사성을 입증하고 텍스트 전체를 볼 수 있게 하는 데 유용하다(Lacey, 2000/2020, 33).

반면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으로서 ‘이야기’의 개념을 의미하는 스토리텔링은 이야기 story와 멀티미디어적, 구술적 속성인 tell, 그리고 상호작용성으로서의 현재성인 -ing의 특성을 포함한다(최혜실, 2008, 689) 이 세 가지 속성을 강조하여 ‘실시간적 시공간성’, ‘재연적 다감각성’, ‘소통적 상호작용성’을 강조한 양식으로 설명되기도 한다(류은영, 2009, 245). 내러티브가 인과적 형식의 서술성을 기반으로 한다면, 스토리텔링은 재현적 구술성을 중심으로 상호작용과 소통의 특징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 이론에서 이야기는 시간 속에서 발생한 변화에 대한 언어적 표현으로 자신의 체험에 대한 의미구조가 부여되며 플롯을 형성한다. 이러한 구조화 과정에서 이야기의 주체는 정체성을 찾아가며, 수용자는 현재의 공간을 체험하며 상호작용한다(최혜실, 2008). 또한 스토리텔링은 정서적 경험이나 실천적 감성에 기반을 두고 의미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기 때문에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김영순, 윤희진, 2010). 이 메커니즘에 주목하여 장소성에 관한 기록 콘텐츠 구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유용하다.

일례로 영국의 리버풀은 산업혁명기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번성한 세계적인 무역 항구도시였으나,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어 준 것은 바로 음악과 축제라는 문화관광 콘텐츠였으며, 이 과정에서 비틀즈를 내세운 도시브랜딩의 성공이 있었다. 비틀즈의 일대기와 관련한 스토리 원형을 발굴하고, 스토리와 장소, 기록 매체를 통해 비틀즈의 음악적 성취를 재현해 놓았다. 비틀즈 박물관과 실제 공연했던 케번 클럽, 음악의 배경이 되었던 지역 등 리버풀 도시 곳곳에 비틀즈와 관련된 장소들을 스토리로 엮어

‘Mystery Tour’를 운영하며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 동일한 맥락으로 핀란드의 소도시 로바니에미의 산타클로스 마을 역시 성공적인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도시브랜딩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전 세계에서 보내지는 “To Santa Claus” 편지들은 이 마을로 보내지며 산타마을이라는 고유의 도시브랜드가 되었다. 편지와 함께 산타클로스와 관련한 스토리가 모이고 산타클로스를 상징하는 우체국, 기념품 가게, 산타 집무실과 같은 것이 모여 고유의 장소정체성을 형성한 것이다. 이 외에도 쾰즈부르크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활용한 콘텐츠를 내세워 세계적인 음악 축제와 관광 명소로 활용하고 있다. 모차르트의 생가를 비롯하여 볼프강의 쾰즈캄머굿, 그리고 미라벨 정원까지 스토리텔링과 관광 콘텐츠가 촘촘하게 짜여져 있다. 이렇듯 성공적인 도시브랜딩에는 다른 도시와 구별되는 고유의 장소정체성이 핵심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도시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록 콘텐츠의 개발에는 타 도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스토리 원형이 발굴되어야 하며, 개별 사건의 재현물로 존재하는 기록을 아우르는 내러티브 구조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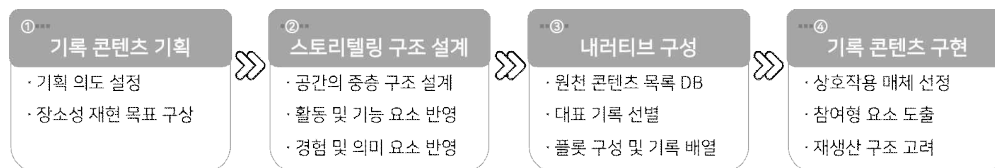
기록 콘텐츠의 개발 과정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유의하여 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첫째, 기록 콘텐츠의 기획 의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콘텐츠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해야 한다. 기록 콘텐츠가 재현할 장소에 대한 기억, 즉 스토리가 명확해야 콘텐츠에 활용할 기록의 범위와 활용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다. 특히 동일한 기록일지라도 기록의 가치는 상황 맥락에 따라 그 해석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콘텐츠의 핵심 메시지는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서사적 플롯보다는 스토리 구조의 설계가 우선 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기록 콘텐츠에 포함될 수 있는 기록의 광범위한 조사와 목록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카이브의 소장 기록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장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현황과 잠재적 생산처들의 조사를 포함해야 하며, 자생적 아카이빙 활동을 하는 지역 내 기관들의 현황을 조사하여 네트워크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카이브에서 모든 기록을 입수하여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소장처 조사를 기반으로 이용자에게 정보 안내 서비스를 하거나 기록 콘텐츠 개발의 협조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기록 콘텐츠의 구현을 위해서는 해당 기록 콘텐츠의 주 이용자 집단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기록 콘텐츠 구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용자 집단의 연령,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서비스 이해도 및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콘텐츠 매체를 선정하고 상호작용이나 체험형 요소의 구현 방법을 정해야 한다. 연령에 따라 혹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에 따라 기록 콘텐츠의 접근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콘텐츠의 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석이나 참여, 소통의 요인들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기록 콘텐츠의 내용인 메시지만큼이나 매체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기록 콘텐츠 개발 전략은 아카이브의 수집 및 평가 정책과 연관되어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아카이브의 수집 및 평가 정책은 아카이브에서 무엇을 어떻게 다큐멘테이션 할 것인가 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당대 사회의 포괄적이고 다원적인 기록화를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기록 콘텐츠가 기획되고 활용될 때 콘텐츠의 의도와 가치가 이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3.2 기록 콘텐츠 개발 절차 설계

장소정체성을 갖는 기록 콘텐츠는 실재하는 현실과 콘텐츠가 재현하는 것, 생산자의 의도가 반영된 상징과 콘텐츠 수용자의 주체적 해석 등이 상호작용을 한 결과가 총체적으로 작용하여 장소정체성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므로 이 메커니즘을 이해한 기록 콘텐츠 개발 과정이 필요하다.

기록 콘텐츠의 기획에 있어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 두 가지 방법론 모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장소정체성을 갖는 기록과 그 배경 정보(맥락 정보)들이 흩어져 존재하는 기록의 특성상 이것들을 조직화하는 방법론으로 내러티브 방법론은 매우 유용하며, 내러티브의 극적 효과를 더욱 증폭하고 몰입감 있는 감정을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장치로서 스토리텔링은 기록의 전달력을 더욱 높여줄 것이다. 흩어져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하나의 주제

로 묶어주기 위해서는 각각의 기록과 맥락 정보를 관통하는 내러티브 구조를 활용하는 것이 기록의 의미를 입체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기록의 가치를 부각하는 것에 효과적이다. 즉, 기록을 이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론으로 내러티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내러티브 구조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층위의 기록을 조직화하여 하나의 이야기 구조로 엮어내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 역시 필요한 방법론이다. 특히 장소정체성의 콘텐츠화에 있어서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개인 또는 집단의 기억이 매우 중요하다. 기록 콘텐츠를 이용하는 수용자의 기억과 기록을 연결해 주는 체험 장치로서 스토리텔링은 효과적인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장소정체성을 위한 기록 콘텐츠 개발 전략을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콘텐츠 기획 단계, 스토리텔링 구조 설계 단계, 내러티브 구성 단계, 기록 콘텐츠 구현 단계로 구성하였다.



<그림 1> 장소정체성 관련 기록 콘텐츠 개발 전략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발 전략은 아카이브에서의 기록 콘텐츠 개발에 폭넓게 적용이 가능하다. 아카이브로 선별된 파편적이고 단편적인 기록들은 거시적 맥락에서 조직화해야 그 의미와 상징이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방법론은 기록을 조직화하고 콘텐츠로 개발할 때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중에서 특히 장소정체성에 관한 기록 콘텐츠는 스토리텔링과 내러티브 구조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장소를 구조화하고 장소와 사람들의 활동에 주목하며, 이 과정에서 파생되는 의미에 집중하는 콘텐츠 개발 방법은 장소정체성의 형성 과정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특히 방법론에서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역시 장소정체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3.2.1 기록 콘텐츠 기획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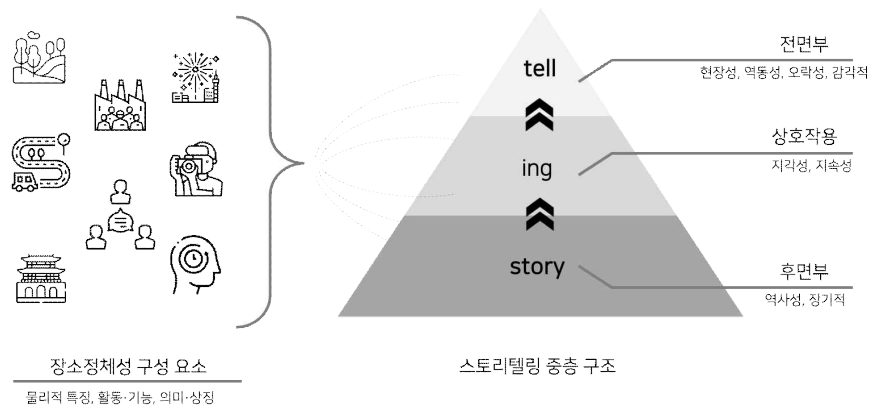
콘텐츠의 기획 단계에서는 기록 콘텐츠가 재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히 하여 기획 의도를 정의해야 한다. 무엇을 재현할 것인지,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소정체성을 지원하는 기록 콘텐츠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렐프가 제시한 장소정체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인 장소의 물리적 특징과 그 물리적 배경 속 사람들의 활동, 그리고 경험의 속성에서 비롯되는 의미를 인식하고, 이들의 상호작용까지 포괄하여 재현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환경과 물리적 특징을 비롯하여, 공간을 구성하는 주체들의 활동과 개인 또는 집단의 경험 모두 콘텐츠의 대상이 되므로 목적에 따라 범위를 한정하고 효과적으로 의도를 전달할 수 있는 대상을 확정해야 한다.

이때 콘텐츠는 의도와 메시지를 재현하는 미메시스로, 정체성을 구성하고 장소성을 형성한다. 기록 콘텐츠가 재현하려고 하는 장소는 기호(sign)가 되며, 기록 콘텐츠는 텍스트로 읽히게 된다. 여기에서 텍스트는 일종의 기표(signifier)이며, 궁극적으로 콘텐츠가 의도하는 바를 나타내는 기의(signified)로 해석되어야 하는 객체가 된다. 이렇게 퍼스 기호학의 관점에서 기록 텍스트를 해석함으로써 콘텐츠가 재현하는 장소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록 콘텐츠의 상징적인 메시지와 복합적 맥락을 고려하여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유용한 접근법을 제공할 것이다.

3.2.2 스토리텔링 구조 설계 단계

이어서 기록 콘텐츠 목적에 부합하는 스토리텔링 구조를 설계한다. 이 단계는 내러티브 이론을 적용하여 콘텐츠

를 전달하기에 앞서 콘텐츠 구조와 관계성을 설계하는 전략 단계를 의미한다. 스토리텔링을 설계할 때는 콘텐츠 대상을 중층(重層) 구조로 설계하여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딘 맥커넬(Dean MacCannell)은 관광 장소의 사회적 공간적 배열은 의도적으로 설계되며, 이러한 공간의 배열에 따라 특정 메시지나 경험은 ‘각색된 진정성(staged authenticity)’으로 전달된다고 하였다(MacCannell, 1973). 맥커넬은 관광객이 주로 머물게 되는 전면부에서 일상생활 공간인 후면부로 연속적인 6단계의 중층 구조로²⁾ 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각 단계에 따라 스토리텔링 전략을 달리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전면부는 콘텐츠로 선별되어 전달될 가치가 높은 현장성과 역동성, 오락성, 감각적인 특징을 갖는 ‘tell’의 요소가 많이 나타나는 공간이며, 후면부는 역사성과 장기적 특징이 드러나는 ‘story’의 요소를 갖는 공간으로, 그리고 이 둘의 사이에 있는 공간이 콘텐츠의 소비자와 지역주민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속성과 지각성의 특징을 갖는 공간인 ‘ing’의 요소를 갖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김지나 외, 2015). 물론 이러한 중층구조의 설계 방법은 ‘장소’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을 구조화하고, 지역주민과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지역 콘텐츠 개발 전략을 위한 것이다. 이외의 장소정체성 구성요소인 ‘활동’과 ‘의미’는 이러한 물리적 환경인 장소에 연계되어 개발될 수도, 별도의 콘텐츠로 조직화할 수도 있다.



<그림 2> 스토리텔링 구조 설계 방안

따라서 기록 콘텐츠의 장소정체성 주제에 부합하는 물리적 환경, 활동, 의미 요소들을 선별하고, 현장성, 역동성, 오락성, 감각적 특징을 갖는 콘텐츠 요소들과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역사성과 장기적 특징을 갖는 스토리로 분리하여 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적 스토리는 현장성을 갖는 콘텐츠로 개발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면부의 스토리로부터 전면부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구조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 구조화 방법은 위의 <그림 2>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3.2.3 내러티브 구성 단계

다음으로 내러티브 구성은 기록 콘텐츠의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록을 맥락화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콘텐츠는 수용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재해석되며 의미를 갖게 된다. 앞서 도출한 콘텐츠 개발 전략과 스토리텔링 구조에 따라 세부적인 표현 방법을 결정한다.

2) 맥커넬은 그의 연구 “Staged Authenticity: Arrangements of Social Space in Tourist Settings”에서 어빙 고프먼(Erving Goffman)이 제시한 개념에 따라 사회적 공간 배열은 전면부(Stage1), 일부분이 후면부처럼 보이도록 꾸며진 관광용의 전면부(Stage2), 후면부처럼 보이도록 완전히 조직된 전면부(Stage3), 외부인에게 개방된 후면부(Stage4), 깔끔하게 정리되고 변형된 후면부(Stage5), 후면부(Stage6)로 되어있다고 구분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콘텐츠 주제에 부합하는 기록물을 빠짐없이 발굴하여 목록화하는 것이다. 이때 기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해당 지역을 재현할 수 있는 총체적 자원을 망라해야 한다. 공공기록물을 포함하여 지역에 관한 연구자료, 언론자료, 유·무형 문화예술자원, 시민사회기록, 구술자료, 경관 및 물리적 환경에 대한 자료 등을 모두 조사하여 목록화할 필요가 있다. 이 기록 자료의 목록은 장소정체성을 지원하는 지역의 원천 콘텐츠 개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 이하 OSMU) 전략을 실현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콘텐츠 기획과 스토리텔링 설계에 따라 구체적인 이야기의 구조와 서사적인 플롯을 결정한다. 플롯에 맞추어 원천 콘텐츠 목록에서 이에 부합하는 기록 콘텐츠를 선별해야 한다. 상징적 의미를 고려하여 대표성을 갖는 기록을 골라내고, 선별된 기록을 내러티브에 맞추어 배열하며 시퀀스를 구성한다. 더 나아가 이 단계에서는 내러티브에 적합하도록 기록을 가공하고 제작하는 과정까지 포함한다.

3.2.4 기록 콘텐츠 매체 구현 단계

마지막으로 매체 구현 단계에서는 콘텐츠 기획 의도가 수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매체를 고려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을 거친다. 콘텐츠가 갖는 의도는 일반적으로 수용자에게 수용되지 않으며, 수용자의 해석을 거쳐 의미를 갖게 된다. 특히 장소정체성을 갖는 기록 콘텐츠의 특성상 수용자의 체험과 공유는 중요하다. 수용자가 주체적으로 스토리텔링의 과정에 참여하고 체험함으로써 장소애착을 형성하여 장소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용자의 콘텐츠 참여를 확대하고 체험적 요소를 도출하여 콘텐츠 개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콘텐츠의 수용 과정에서는 수용자는 기표로서의 기록 텍스트를 해석하여 기의를 읽어내는 과정을 거친다. 장소가 의미하는 기호에 대한 상호작용의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용자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콘텐츠를 재생산하며 새롭게 재현해간다. 이 과정에서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변형되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간다. 상호작용과 지속적 재생산과 새로운 재현의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록 콘텐츠의 구현 방안이 요구된다.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구현됨에 따라 콘텐츠의 체험과 공유, 재생산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술을 장소정체성의 강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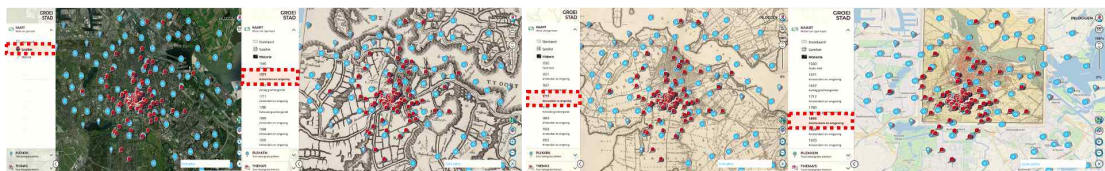
4. 장소정체성 관련 기록 콘텐츠 활용 및 서비스 방안

장소정체성을 지원하는 기록 콘텐츠는 지역 공동체의 집단기억을 소환하고 기록의 상징과 의미를 해석하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구조로 구현되어야 한다. 기록 콘텐츠와 수용자의 상호작용 관계는 콘텐츠의 의미 전달의 핵심이 되는 과정이다. 기록과 기록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 그리고 텍스트에 내포된 이데올로기를 콘텐츠를 읽는 수용자가 해석하는 프로세스는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사회과학 방법론의 거시적 관점에서 개인의 행위는 사회구조에 영향을 받지만,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미시적 관점에서 개인의 주관성에 주목한다. 상황맥락은 동일하지만, 개인 수용자의 해석에 따라 기록 콘텐츠의 의미는 달라지므로 이 과정에 주목하여 기록 콘텐츠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수용자의 다양한 해석은 여러 층위로 해석되고 확장되며 기록 콘텐츠가 재현하는 도시는 생동하는 장소정체성을 갖게 된다. 기록 콘텐츠의 활용에 수용자의 참여를 더욱 증진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층위의 해석을 수용하고, 수용자 간의 공유를 통해 장소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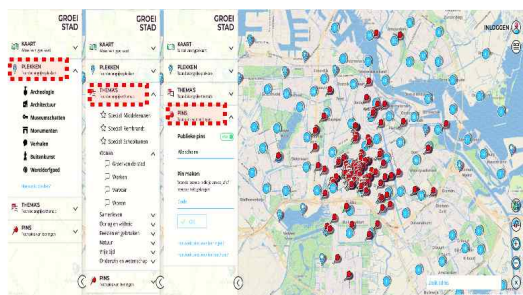
그러므로 기록 콘텐츠의 상호작용성을 확장하기 위한 기록 콘텐츠의 서비스 및 활용 매체는 중요하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며 사회 기능의 상당 부분이 온라인,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전환되며 온라인 방식은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었다. 이에 더해 정보기술의 발달은 디지털 기술 기반의 서비스 제공을 한층 더 확대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장소정체성과 관련한 기록 콘텐츠의 서비스 방안으로 상호작용성과 체험적인 요소를 강화하는 것은 효과적인 장소정체성 재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기존의 콘텐츠 서비스 방식인 단방향성에서 탈피하여 콘텐츠 수용자와의 상호작용을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는 다원화된 아카이브를 지향할 수 있다. 아카이브를 비롯한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기관에서 콘텐츠 수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증진하고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아카이브에서의 장소정체성 지원을 위한 기록 콘텐츠 서비스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4.1 지역 공동체의 참여적 특성 구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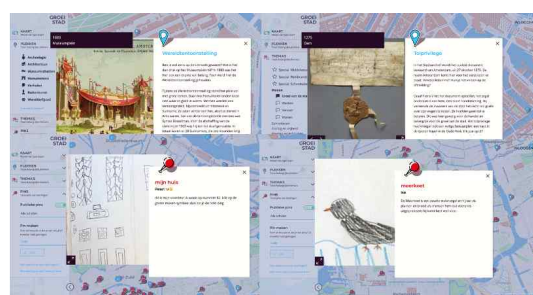
네덜란드 시립 아카이브(Stadsarchief Amsterdam)와 암스테르담 박물관(Amsterdam Museum), 암스테르담 건축센터(Architectuurcentrum Amsterdam), 문화재연구소(Monumenten en Archeologie)는 공동으로 문화 유산 교육 프로그램 “Groeistad”³⁾을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도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문화유산 관련 기관들의 컬렉션 정보와 학교의 프로젝트 수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소스를 제공한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지역의 유산을 찾아보고 정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과 문화유산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하고 지역의 공동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해준다.



<그림 3> Groeistad의 일반지도, 위성지도, 역사지도 선택 화면
[출처: <https://groeistad.nl/#/dashboard>]



<그림 4> 중요 장소, 테마별 장소, 학생들이 참여하여 등록한 장소 정보 제공
[출처: <https://groeistad.nl/#/dashbo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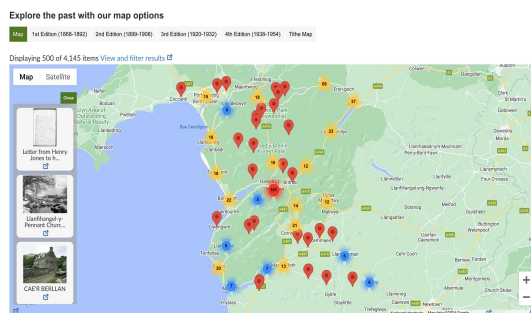
<그림 5> 주요 문화유산 정보(上)와 학생들이 직접 등록한 장소 기록(下) 예시
[출처: <https://groeistad.nl/#/dashboard>]

3) Netherland Groeistad. Available: <https://groeistad.nl/#/dashbo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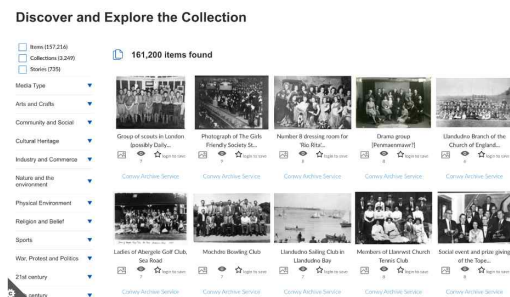
<그림 4>와 같이 암스테르담의 유적지와 랜드마크, 박물관, 기념물, 역사적인 스토리, 야외 예술작품, 세계 문화유산 등을 지도와 맵핑해두고 각각의 설명 정보를 연계해 두었다. 이때의 지도는 <그림 3>과 같이 위성지도 를 비롯하여 16세기부터의 역사 지도부터 현재의 지도까지 선택하여 지역의 정보들을 표시해 볼 수 있다. 해당 정보는 또한 각각의 테마별로도 제공되고 있는데, <그림 4>의 좌측 패싹정보에서 보여지듯이 생활정보, 민주주의 와 같은 연대의 가치, 전쟁, 종교, 관습, 자연, 문화, 스포츠, 교육이나 과학과 같은 테마별로 정보들을 범주화해서 제공하기도 한다. 특히 Groeistad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초등학교생들이 직접 교과 과정에 참여하며 지역의 정보를 등록하게 제공하는 부분이다. <그림 5>에서 보듯이 1883년의 세계박람회에서의 노예 전시 스토리를 게재하며, 관련 사진과 그림을 지도 위에 표시하였고(좌측 상단), 암스테르담의 가장 오래된 문서인 1275년의 통행료와 관련된 아카이브 소장 문서를 소개하고 있다(우측 상단). 하단의 그림 두 가지는 학생들이 직접 지도에 등록한 “우리 집”과 “유라시아 물담”에 대한 정보가 표시된 것이다.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이 정보들이 공유되고 동일 장소 에 대한 정보들이 축적되어 재생산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생활하는 공간 주변의 장소에 대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정보를 직관적으로 찾아볼 수 있으며,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직접 해당 장소에 대한 기억과 정보를 등록하고 이것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착과 장소성을 형성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카이브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자료와 커뮤니케이션 톨을 제공하고, 지역의 지도를 ‘함께’ 만들어가며 장소정 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때 플랫폼은 이용자와 상호작용에 적합한 디지털 맵을 제공 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과 아카이빙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적 특성을 보인다.

이 외에도 이용자가 스스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원하는 형태의 큐레이션으로 기록을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의 제공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에 의한 장소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용자와 지역주민 간의 소통, 그리고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정보 공유와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의 설계가 필요하다.

People's Collection Wales 아카이브는 웨일즈의 역사, 문화, 사람들에 관한 집단 기억을 수집하고 지역 커뮤니 티에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공동체 아카이브이다. 2003년 웨일즈 정부의 지원으로 설립되었는데, 지역 주민 누구 나 기록을 기증하고 관련된 컬렉션을 구성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아카이브가 소장한 자료는 <그림 6>과 같이 지도 기반으로 제공하여 지역과의 관계성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본인이 직접 등록한 기록뿐만 아니라 기소장 기록을 활용하여 스토리나 컬렉션을 구성하고 이렇게 작성된 수많은 컬렉션에 대해 코멘트를 남기 거나 링크를 통해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그림 7>과 같이 제공하여 지역의 기억을 남기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과정을 통해 집단기억을 형성하고 다음 세대로 이를 전승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림 6> People's Collection Wales 아카이브의 소장자료를 지도 기반으로 제공
[출처: <https://www.peoplescollection.wales/locate>]



<그림 7> 지역 주민이 직접 컬렉션을 구성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제공
[출처: <https://www.peoplescollection.wales/discover>]

4.2 이용자와의 상호작용 구현 사례

아카이브에서 장소성 관련 기록 콘텐츠의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는 가상현실(AR)이나 증강현실(VR), 혹은 이 둘을 융합하여 실시간으로 사용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환경을 구현하는 확장현실(XR) 기술을 검토할 수 있다. 이용자가 직접 현실 이미지로 구현된 가상의 공간에 입장하여 경험하고 체험하는 XR 기술은 초기에는 게임산업 등에서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나 점차 교육, 제조,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아카이브에서는 상호작용성과 체험적 요소의 구현을 위해 가상화된 공간으로서의 메타버스 플랫폼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 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은 2007년 Metadata Roadmap Overview을 발표하며 메타버스에 대해 현실의 경험이 가상화되어 증진되고 물리적으로 지속되는 가상 공간으로 정의하며, 물리적 세계와 가상 세계가 만나는 경험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메타버스가 현실 세계의 경험을 어디까지 확장할 것이며, 메타버스가 구현해 내는 공간이 어떠한 장소성을 축적할 수 있는지 고찰이 필요하다. 메타버스가 장소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경험을 담을 수 있는 현실 세계와 유사성을 갖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정체성의 표현 방법과 시간적 요소와의 결합이 필요하다(김한진, 이경훈, 2022). 현재의 메타버스 플랫폼은 아직은 현실 세계의 장소성을 연계하여 메타버스 내에 형성하고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경험을 확장하고 기억을 공유하기 위한 장치들은 부족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발전가능성을 예측하고는 있지만 어느 수준까지 구현되어 실생활과 유사한 경험을 제공할지는 예단하기 이르다.



<그림 8> 대구 시립 두류도서관의 두류 메타버스 도서관

[출처: <https://web.zepeto.me/ko/detail/z5BIP3wK87dugdssDRhFAYX?referrer=search>]



<그림 9> 경남교육청 메타버스 기록전시관

[출처: https://web.zepeto.me/ko/detail/ivkq63wK87rt720wsiGsxyz?referrer=copylink_share]

현재 메타버스를 활용한 콘텐츠 서비스는 주로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바타 형식으로 전시 콘텐츠를 체험하게 하고 게임 요소를 가미한 퀘스트를 해결하는 형태나(국립중앙박물관의 ‘힐링 동산’, 대한민국의사박물관의 ‘광화문 테마월드’, 메타버스 서울의 ‘서울역사박물관 월드’, 국립조세박물관 메타버스 등) 도서관의 이용 안내나 교육 프로그램 강좌에 참여하게 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국회도서관, 대구시립 두류도서관, 강북문화정보도서관, 한성대학술정보도서관 등)들이 많았다. 지역 콘텐츠 관련해서는 주로 관광 목적으로 메타버스를 개발하였으나 실제 활용 실적은 저조하다. 그 원인으로는 현실 장소의 재현이 조악하여 대체재로 활용할 수 없으며, 현장과의 상호작용이 부족하고 내러티브의 부재와 부실한 마케팅을 원인으로 들고 있다(김진형,

2022). 더욱이 기록관이나 아카이브에서의 메타버스 활용은(경남교육청 기록관, 양천구청 기록관 등) 이제 시도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술 변화의 속도가 매우 가파르게 성장 중인 현실을 고려하면 현재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기록 콘텐츠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의 활용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메타버스는 현실과 확장된 경험을 제공하는 매체로서 이용자의 참여형 콘텐츠가 활발히 공유되며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개인의 경험과 기억이 확장현실이라는 매체를 통해 공유되며 새로운 장소를 구축하는 데 활용하기 위한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쇠락해가고 있는 도시의 기억을 소환하는 매개로 작동하여 공동체의 기억을 되살리고 지역민의 기억과 오늘날 시민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장소성을 회복하는 기제로 활용 가능성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4.3 이용자의 능동적 탐색 강화 구현 사례

아카이브에서의 기록콘텐츠 서비스는 기록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용자와 과거의 기억을 연결하고 소통의 역할을 담당하지만,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서은경, 박희진, 2019). 기록 콘텐츠의 서비스 전략을 수립할 때 기록 콘텐츠 이용자의 참여 확대와 능동적인 콘텐츠 체험을 위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이전의 정보서비스와는 차원이 다른 정보검색 및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기록 콘텐츠 생산자의 의도가 일방향성을 갖고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요구를 능동적으로 표출하고 이용자가 스스로 콘텐츠를 선별하고 소비하며 나아가 생산하는 과정에까지 참여가 확대되었다.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맞춘 맞춤형 기록 콘텐츠 추천과 이용자의 반응에 의한 인터랙티브 콘텐츠 서비스도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 영국의 테이트 미술관(Tate Modern Museum)은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협력하여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인 “Recognition”을 제작한 창작자에게 2016 IK Prize를 시상하였다.⁴⁾ Recognition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그림 10>과 같이 테이트 미술관 소장 미술작품과 로이터 통신의 최근 보도사진 유사도를 분석하고 보도사진과 관련있는 작품을 매칭하는 방식의 서비스이다. 테이트미술관은 이러한 서비스가 미술작품 컬렉션과 아카이브 자료를 기반으로 가상의 갤러리로 끊임없이 확장하며, 예상하지 못한 비교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타임캡슐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 서비스는 인공지능 학습 모델과 패턴을 기반으로 한 객체인식과 얼굴인식, 모양과 구조, 색상 등의 시각적 표현정보를 인식하는 구성인식, 그리고 맥락인식을 기반으로 매칭되는 작품을 찾는다. 이 중에서 맥락인식은 이미지에 관련된 맥락정보, 즉 제목, 날짜, 태그, 설명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관련 있는 작품을 찾아준다. 이 기술은 기록 콘텐츠 서비스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를 활용하면 소장 기록의 맥락 정보를 추출하고 연관있는 다른 기록을 매칭해주는 서비스가 가능하다. 기록의 기술정보나 주제, 인물, 사건, 장소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추출하여 유사한 맥락의 관련 기록을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업무맥락이나 기능맥락에 의존했던 기존의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기존의 메타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 품질로 충분히 상세히 확보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메타데이터 추출은 기록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기술 분야이다. 이렇게 추출된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가 요청한 특정 장소, 사물, 환경, 활동 등의 키워드나 주제어에 대해 관련 기록의 호출 결과를 기존에 정형화된 계층 구조를 넘어서서 다양한 층위를 구성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능동적으로 정보에 대한 탐색이 가능한 구조를 제공할 것이다.

4) 현재 Tate Modern Museum 홈페이지에서는 Recognition virtual gallery 서비스 페이지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터넷아카이브의 Wayback Machine을 통해 크롤링된 페이지를 방문하여 전시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Available: <https://web.archive.org/web/20220521153159/http://recognition.tate.org.uk/#highlights>



VIEW IN ARCHIVE

LEFT 12/09/2016
Sunni worshippers attend prayers at a Sunni mosque
on the first day of the Muslim festival of Eid al-
Adha in Baghdad
© KHALID AL-MOUSILY / REUTERS

RIGHT 1810
Sher Shah's Mausoleum, Sasaram
© THOMAS DANIELL / TATE

<그림 10> Recognition 서비스 사례로, 2016.12.9.일자 로이터통신의
보도사진인 수니파 신도들의 모스크 기도 사진(左)과 테이트 미술관
소장작품인 토마스 다니엘의 1810년작 “Sher Shah's Mausoleum,
Sasaram”(右)

[출처: <https://web.archive.org/web/20220521153159/http://recognition.tate.org.uk/#highlights>]

이와 같이 이용자의 콘텐츠 참여를 강화하거나 상호작용성을 증진하고, 혹은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록 콘텐츠 제공 방안을 모색하는 시도는 이어지고 있다. 아카이브는 지역 주민이 직접 들려주는 경험과 기억을 다양한 경로로 수집하고 이 이야기를 원형으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하며, 콘텐츠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 정보들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획득하고 재생산되는 활용 구조를 제공하기 위한 역할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현재 한국이 마주한 인구 감소와 생산인구의 대도시 집중은 유례없는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 정책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다. 지역의 사라져가는 기억을 복원하고 새로운 문화자원을 발굴하는 도시브랜딩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기저에는 원천자료, 즉 기록정보의 발굴이 핵심이다. 도시의 장소정체성을 지원하는 원천자료를 발굴하고 구조화하여 OSMU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원천자료를 활용하여 기록 콘텐츠를 구성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지원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논증하였다. 그리고 장소정체성을 갖는 기록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토리텔링과 내러티브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을 고찰해 보았다. 장소정체성의 주요 요소인 물리적 환경과 활동, 의미 요소가 콘텐츠 수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기록 콘텐츠 개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구조 설계를 위해서는 스토리텔링과 내러티브 방법론을 차용하여 기록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유의미하며, 더 나아가 디지털 기술 기반 서비스의 적극적인 활용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더욱 확장하여 장소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목적에 부합하는 기록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4단계의 개발 절차는 향후 아카이브에서 기록 콘텐츠 개발 전략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장소정체성을 지원하는 기록 콘텐츠 개발을 위한 거시적 차원의 방법론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어, 구체화된 지침이나 가이드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스토리텔링 구조와 내러티브 구성 방법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기록 콘텐츠를 개발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세부적인 지원 도구를 개발하는 것은 후속 과제로 남겨둔다. 이와 함께 기록 콘텐츠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능형 서비스나 새로운 기술 플랫폼 환경에서의 콘텐츠 구현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실증적 연구가 이어져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아카이브 활동이 활발히 이어지고, 이로써 아카이브의 외연 확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학순 (2011). 존재와 공간: 하이데거 존재의 토폴로지와 사상의 흐름. 파주: 한길사.
- 경남교육청 (2022.5.4.). 메타버스 기록전시관. 출처: https://web.zepeto.me/ko/detail/ivkq63wK87rt720wsiGsxyz?referrer=copylink_share
- 고은지, 이해영 (2023). 기록 기술과 콘텐츠 서비스의 상호보완적 고도화 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2(4), 151-174. <https://doi.org/10.14404/JKSARM.2022.22.4.151>
- 국토교통부, 한국국토정보공사 (2023). 2022 도시계획현황.
- 김영순, 윤희진 (2010). 향토문화자원의 스토리텔링 과정에 관한 연구: 인천시 서구 검단의 황곡마을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17), 327-343.
- 김지나, 한소영, 조경진 (2015). 장소마케팅 공간 스토리텔링의 층층 구조에 관한 연구: 미국 솔베이시와 한국 제천시를 중심으로. 도시설계, 16(3), 85-100.
- 김진형 (2022). 위기의 지역명소 메타버스, 내러티브와 기술 융복합이 필요하다. G-BRIEF, 134, 1-8.
- 김창휘 (2022).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97, 47-79.
- 김한진, 이경훈 (2022). 메타버스 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80), 87-95.
- 김현지, 공성운, 정운경, 강운서 (2024.2.23). 인구 소멸 전국지도... 100년 안 사라지는 마을 수 123곳. 시사저널.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3943>
- 김현진, 임진희 (2022). 메타버스 기반 기록정보서비스 적용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74), 119-153. <https://doi.org/10.20923/kjas.2022.74.119>
- 대구광역시 시립 두류도서관 (2022.1.15.). 두류 메타버스 도서관. 출처: <https://web.zepeto.me/ko/detail/z5BIP3 wK87du gdssDRhFAYX?referrer=search>
- 도운지 (2013). 기록물을 활용한 지역사 교육콘텐츠 개발 방안: 부산광역시 중등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36), 69-119. <https://doi.org/10.20923/kjas.2013.36.069>
- 류영아 (202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및 향후 과제: 중장기적 정책과 거점 전략화 (NARS 입법·정책 108호).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 류은영 (2009).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 문학에서 문화콘텐츠로. 인문콘텐츠, (14), 229-262.
- 박기수, 안승범, 이동은, 한혜원 (2012).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의 현황과 전망. 인문콘텐츠, (27), 9-25.
- 박민정 (2006). 내러티브란 무엇인가?: 이야기 만들기, 의미구성, 커뮤니케이션의 해석학적 순환. 아시아교육연구, 7(4), 27-47.
- 박옥남 (2019). 문화유산 콘텐츠 온라인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1), 195-224. <https://doi.org/10.14404/JKSARM.2019.19.1.195>

404/JKSARM.2019.19.1.195

- 박옥남 (2022). 국가기록원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4), 515-536. <https://doi.org/10.4275/KSLIS.2022.56.4.515>
- 백진이, 이해영 (2018). 영국 국립기록보존소(TNA)의 교육용 기록정보콘텐츠 서비스.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1), 49-77. <https://doi.org/10.14404/JKSARM.2018.18.1.049>
- 서동진, 김주연 (2022). 장소정체성을 위한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 비교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7(3), 363-374. <https://doi.org/10.35216/kisd.2022.17.3.363>
-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발행년불명). 인구 및 면적집중도. 출처: <https://data.si.re.kr/data/서울과-세계대도시/20>
- 서은경, 박희진 (2019). 기록콘텐츠 기반의 아카이브 전시 활성화 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1), 69-93. <https://doi.org/10.14404/JKSARM.2019.19.1.069>
- 설문원 (2011). 디지털 환경에서의 로컬리티 기록화 방법론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207-230. <https://doi.org/10.14404/JKSARM.2011.11.1.207>
- 설문원, 김영 (2016). 공동체 아카이브를 위한 기록평가론의 재조명. 기록학연구, (48), 209-251. <https://doi.org/10.20923/kjas.2016.48.210>
- 손동유, 이경준 (2013).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활성화 방안. 기록학연구, (35), 161-206. <https://doi.org/10.20923/kjas.2013.35.161>
- 손지수 (2007). 도시설계 비교분석에 의한 신도시 중심상업지역의 도시정체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송정숙 (2012). 부산의 기억과 로컬리티: <부산의 인물>과 <부산의 문화제>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2), 343-364. <https://doi.org/10.16981/kliss.43.2.201206.343>
- 송주연, 임석희 (2015). 도시의 질적 발전을 위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이론적 탐색. 대한지리학회, 50(6), 677-694.
- 신예진, 최재황 (2015). 역사교육용 기록정보 콘텐츠의 교육적 효용성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3), 193-217. <https://doi.org/10.14404/JKSARM.2015.15.3.193>
- 심갑용, 유현경, 문상훈, 이운용, 이정현, 김용 (2015). 한류문화콘텐츠의 기록화를 위한 AtoM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K-Food 콘텐츠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3), 5-42. <https://doi.org/10.20923/kjas.2015.43.005>
- 심성보 (2007).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의 구성 및 개발. 기록학연구, (16), 203-258.
- 오경한, 김건 (2023). 영미권 공연예술아카이브 비교·분석을 통한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기록정보콘텐츠 개선 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3(4), 1-24. <https://doi.org/10.14404/JKSARM.2023.23.4.001>
- 유은영, 강순애 (2019).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콘텐츠의 사용성 평가에 관한 연구: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컬렉션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1), 137-166. <https://doi.org/10.14404/JKSARM.2019.19.1.137>
- 윤규빈 (2024). '마을기록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분석 및 운영 모형 설계.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4(1), 111-136.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1.111>
- 이경남, 이현정 (2020). 서사 기반 수집 실행지침의 설계와 개발절차: 서울기록원의 S-NAP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65), 199-226. <https://doi.org/10.20923/kjas.2020.65.199>
- 이경래 (2015). 과거사 집단기억과 '아카이브 정의': 진실화해위원회 아카이브의 동시대적 재구성. 기록학연구, (46), 5-44. <https://doi.org/10.20923/kjas.2015.46.005>
- 이도순 (2021). '기록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 연구. 기록학연구, (69), 95-128. <https://doi.org/10.20923/kjas.2021.69.095>
- 이무용 (2006). 장소마케팅 전략의 문화적 개념과 방법론에 관한 고찰. 대한지리학회지, 41(1), 39-57.
- 이영남 (2008). '마을아르페'(Community Archpe) 시론: 마을 차원의 "책, 기록, 역사 그리고 치유와 창업의 커뮤니티"를 위한 제안. 기록학연구, (18), 221-254. <https://doi.org/10.20923/kjas.2008.18.221>

- 이용재 (2010). 프랑스 역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피에르 노라의 『기억의 장소』에 대한 고찰. 프랑스사 연구, (23), 185-201.
- 이은영 (2011a). 교육용 기록정보콘텐츠 개발 절차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9), 129-173. <https://doi.org/10.20923/kjas.2011.29.129>
- 이은영 (2011b). 교육과정 분석에 따른 교육용 기록정보콘텐츠의 예시 설계.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165-188. <https://doi.org/10.14404/JKSARM.2011.11.2.165>
- 정은주, 정봉현, 나주몽 (2016). 도시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리질리언스(Resilience)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8(4), 87-108.
- 정희명, 김순희 (2023). 영미권 국립보존기록관 인스타그램의 기록정보콘텐츠 사례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3(2), 1-26. <https://doi.org/10.14404/JKSARM.2023.23.2.001>
- 정현목 (2013). 전통적인 장소의 변화와 '비장소(non-place)'의 등장: 마르크 오제의 논의와 적용사례들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9(1), 107-141.
- 최인호 (2008). 대중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지 스토리텔링.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8(12), 396-403. <https://doi.org/10.5392/JKCA.2008.8.12.396>
- 최혜실 (2008). 스토리텔링의 이론 정립을 위한 시론: 공간 스토리텔링으로서의 테마파크 스토리텔링. 국어국문학, (149), 685-704. <https://doi.org/10.17291/kolali.2008..149.025>
- 한국고용정보원 (2022.4.29.). 22년 3월, 전국 시군구 2곳 중 1곳은 소멸위험지역. 한국고용정보원 보도자료. 출처: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488
- 현문수, 김동철 (2013). 지역사 인물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 박기종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36), 195-231. <https://doi.org/10.20923/kjas.2013.36.195>
- (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2019). 지역 역사문화 아카이빙을 위한 김포 북변동 스토리텔링 사업.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1), 275-281. <https://doi.org/10.14404/JKSARM.2019.19.1.275>
- e-나라지표 (발행년불명). 도시 일반현황.
출처: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00
- 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 (2007). Metadata Roadmap Overview(2007-2025): A Cross-Industry Public Foresight Project.
- Lacey, Nick (2000). Narrative and Genre: Ken Concepts in Media Studies. 임영호 옮김 (2020). 내러티브와 장르: 미디어 분석의 핵심 개념들. 부산: 산지니.
- MacCannell, Dean (1973). Staged Authenticity: Arrangements of Social Space in Tourist Setting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9(3), 589-603.
- Netherland Groeistad (n.d.). Groeistad. Available: <https://groeistad.nl/#/dashboard>
- People's Collection Wales (n.d.). A People's Story of Wales. Available: <https://www.peoplescollection.wales/>
- Relph, Edward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김덕현, 김현주, 심승희 옮김 (2005). 장소와 장소상실. 서울: 논형.
- Tate Modern Museum (n.d.). Tate Britain Exhibiton. IK Prize 2016: Recognition. Available: <https://www.tate.org.uk/whats-on/tate-britain/ik-prize-2016-recognition>
- Tuan, Yi-Fu (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윤영호, 김미선 옮김 (2020). 공간과 장소. 서울: 사이.
- UN Habitat (2020). World Cities Report 2020: The Value of Sustainable Urbanization. Available: <https://unhabitat.org/world-cities-report-2020-the-value-of-sustainable-urbanization>

Wilson, Ben (2020). *Metropolis: A History of the City, Humankind's Greatest Invention*. 박수철 옮김 (2021). *메트로폴리스: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도시의 역사로 보는 인류문명사*.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i, Hye-sil (2008). An Essay to Establish Theory of Storytelling.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149), 685-704. <https://doi.org/10.17291/kolali.2008..149.025>
- Choi, Inho (2008). Tourist Destination Storytelling using Popular Culture Cont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8(12), 396-403. <https://doi.org/10.5392/JKCA.2008.8.12.396>
- Daegu Metropolitan Duryu Library (2022.1.15.). *Duryu Metaverse Library*. Available: <https://web.zepeto.me/ko/detail/z5BIP3wK87dugdssDRhFAYX?referrer=search>
- Do, Yoonji (2013). A Study on Developing Procedures of Archival Contents for Local History Education of Secondary Education in Busan.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6), 69-119. <https://doi.org/10.20923/kjas.2013.36.069>
-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2022.5.4.). *Metaverse Archive*. Available: https://web.zepeto.me/ko/detail/ivkq63wK87rt720wsiGsxyz?referrer=copylink_share
- Hyun, Moonsoo & Kim, Dong-Chul (2013). A Study on Developing Archival Contents for Documenting Local Historical Character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6), 195-231. <https://doi.org/10.20923/kjas.2013.36.195>
- Jeong, Hoemyeong & Kim, Soonhee (2023). A Case Study of the National Archives Instagram Archival Content in the Anglospher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3(2), 1-26. <https://doi.org/10.14404/JKSARM.2023.23.2.001>
- Jung, Eun Ju, Jeong, Bonghyun & Na Ju Mong (2016). A Study on the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of City.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28(4), 87-108.
- Jung, Heon-mok (2013). A Review of Studies on 'Non-place' of Marc Augé. *Cross-Cultural Studies*, 19(1), 107-141.
- Kang, Hak Soon (2011). *Existence and space: Heidegger's Topology of Being and the Flow of Thought*. Paju: Hangilsa.
- K-indicator (n.d.) General status of the city. Available: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00
- Kim, Chang-Hwee (2022). A study on the strategy to improve the legislation for urban regeneration to be sustainable. *Public Land Law Review*, 97, 47-79.
- Kim, Han-Jin & Lee, Kyung-Hoon (2022). Basic Study for Reinforcement of Placeness in Metaverse Spac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Culture Architecture*, (80), 87-95.
- Kim, Hyunjin, Gong, Sungyun, Jung, Yunkyoung & Kang, Yoonseo (2024.2.23.). Depopulation national map... The number of villages that will disappear in 100 years is 123. *Sisa Journal*. Available: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3943>
- Kim, Hyunjin & Yim, Jin Hee (2022). A Study on Application of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Based on Metaverse.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74), 119-153. <https://doi.org/10.20923/kjas.2022.74.119>
- Kim, Jina, Han, Soyoung & Zoh, Kyungjin (2015). Multi-layered Structure of Spatial Storytelling in Place Marketing: With Case Study on Solvang, U.S.A and Jecheon-si, Korea. *Journal of The Urban Design Institute of Korea*, 16(3), 85-100.

- Kim, Jinhyung (2022). Destination Metaverse in Crisis, Narrative and Technology Need to Converge. G-BRIEF, 134, 1-8.
- Kim, Youngsoon & Yun, Heejin (2010). A Study on the storytelling process of the native culture resources: Focusing on the Korean traditional Village 'Hwanggok'. Humanities contents, (17), 327-343.
- Koh, Eun-ji & Rieh, Hae-Young (2022). A Study on the Complementary Advancement Plan for the Archival Description and Content Servic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2(4), 151-174. <https://doi.org/10.14404/JKSARM.2022.22.4.151>
-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2022.4.29.). March 2022, One in two municipalities in the country is at risk of extinction.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Press. Available: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488
- Lee, DoSoon (2021). A Study on the Direction of 'Citizen Archivist' Training Program.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69), 95-128. <https://doi.org/10.20923/kjas.2021.69.095>
- Lee, Eunyeong (2011a). A Study on developing procedures of an archival contents for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9), 129-173. <https://doi.org/10.20923/kjas.2011.29.129>
- Lee, Eunyeong (2011b). A Study on developing procedures of an archival contents for educ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1(2), 165-188. <https://doi.org/10.14404/JKSARM.2011.11.2.165>
- Lee, Kyong Rae (2015). Past Affairs-Related Collective Memories and the Archival Justice : The Contemporary Rebuilding of the Archive on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ttee.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6), 5-44. <https://doi.org/10.20923/kjas.2015.46.005>
- Lee, Kyungnam & Lee, HyeonJung (2020). A Study on Design and Development Process of Narrative Archiving Policy : Focused on S-NAP of Seoul Metropolitan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65), 199-226. <https://doi.org/10.20923/kjas.2020.65.199>
- Lee, Mu Yong (2006). A Study on the Cultural Concept and Methodology of the Place Marking Strategy.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1(1), 39-57.
- Lee Yong Jae (2010). How To Write the History of France: Pierre Nora and His Lieux de mémoire. Korean Review of French History, (23), 185-201.
- Lee, Young Nam (2008). Essay on the Community Archpe.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18), 221-254. <https://doi.org/10.20923/kjas.2008.18.221>
-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2023). 2022 Urban planning status. Available: <https://www.lx.or.kr/kor/publication/city/freeView.do?seq=405>
- Oh, Kyunghan & Kim, Geon (2023).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rchival Content Services in the Museum of Performing Arts of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through Comparisons and Analyses of UK and US Performing Arts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3(4), 1-24. <https://doi.org/10.14404/JKSARM.2023.23.4.001>
- Paik, JinYi & Rieh, Hae-Young (2018). Archival Contents Service for Education in the UK TN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8(1), 49-77. <https://doi.org/10.14404/JKSARM.2018.18.1.049>
- Park, Kisoo, Ahn, Soongbuem, Lee, Dongeun & Han, Hyewon (2012). Current State and Outlook of Cultural Contents Storytelling. Humanities Contents, (27), 9-25.
- Park, Minjung (2006). A theoretical investigation on the concept of narrative: Storytelling, meaning-making, and

- communication. *Asian Journal of Education*, 7(4), 27-47.
- Park, Oknam (2019). A Study on the Online Service of Cultural Heritage Cont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9(1), 195-224. <https://doi.org/10.14404/JKSARM.2019.19.1.195>
- Park, Oknam (2022). A Study on the YouTube Videos Content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6(4), 515-563. <https://doi.org/10.4275/KSLIS.2022.56.4.515>
- Ryu, Eunyoung (2009). Narrative and storytelling : from literature to culture contents. *Humanities Contents*, (14), 229-262.
- Ryu, Young Ah (2022). A Study on the Present State of Introduction and Improvement Plan of the Local Extinction Reaction Fund (NARS Legislation-policy 108), Korea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s.
- Seo, Dongjin & Kim JooYun (2022). A Comparative Study of the Multi-Meaningful Concept of Placeness for Place Identity.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Spatial Design*, 17(3), 363-374. <https://doi.org/10.35216/kisd.2022.17.3.363>
- Seo, Eun-Gyoung & Park, Hee Jin (2019).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Archive Exhibitions using Archival Cont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9(1), 69-93. <https://doi.org/10.14404/JKSARM.2019.19.1.069>
- Seol, Moon-Won (2011). A Study on Documenting Locality in Digital Environmen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1(1), 207-230. <https://doi.org/10.14404/JKSARM.2011.11.1.207>
- Seol, Moon-Won & Kim, Young (2016). Revisiting Archival Appraisal Theories for their Application to Community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8), 209-251. <https://doi.org/10.20923/kjas.2016.48.210>
- Shim, Gab Yong, Yoo, Hyeon-Gyeong, Moon, Sang-Hoon, Lee, Youn-Yong, Lee, Jeong-Hyeon & Kim, Yong (2015). A Study on Availability of AtoM for Recording Korean Wave Culture Contents : A Case of K-Food Content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3), 5-42. <https://doi.org/10.20923/kjas.2015.43.005>
- Shim, Sung-Bo (2007). Composition and Development of Archival Content Service for Teaching-learning Material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16, 203-258.
- Shin, Yejin & Choi, Jae Hwang (2015). The Analysis of Educational Effectiveness on Archival Contents for History Educ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5(3), 193-217. <https://doi.org/10.14404/JKSARM.2015.15.3.193>
- Sohn, DongYou & Lee, KyungJun(2013). A Plan to Activate the Archive of Maeul Communiti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5), 161-206. <https://doi.org/10.20923/kjas.2013.35.161>
- Son Jisoo (2007). A study on identity of CBD in new towns by comparative analysis of urban design guidelines.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Korea.
- Song, Jung-Sook (2012). Memories and the Locality of Pusan: Focusing on Historical Figures of Busan and Cultural Properties of Busa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2), 343-364. <https://doi.org/10.16981/kliss.43.2.201206.343>
- Song, Juyoun & Yim, Seokhoi (2015). Theoretical Exploration of Social Sustainability for the Qualitative Development of Cities.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50(6), 677-694.
- The Institute of Archiving Network (2019). Storytelling Project for Local Historical and Cultural Archiving on Bukbyeon-dong, Gimpo-si.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9(1), 275-281. <https://doi.org/10.14404/JKSARM.2019.19.1.275>

- The Seoul Research Data Service (n.d.) Population and Area concentration. Available: <https://data.si.re.kr/data/서울과-세계대도시/20>
- Yoon, Gyubin (2024). Analysis and Operational Model Design of the “Village Citizen Archivist” Training Program,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4(1), 111–136.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1.111>
- Yu, Eun Yeong & Kang, Soon-Ae (2019). A Study on the Usability Evaluation of the Archival Contents i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Focus on “Decisions Relating to the Independence Movement” Collec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9(1), 137–166. <https://doi.org/10.14404/JKSARM.2019.19.1.137>